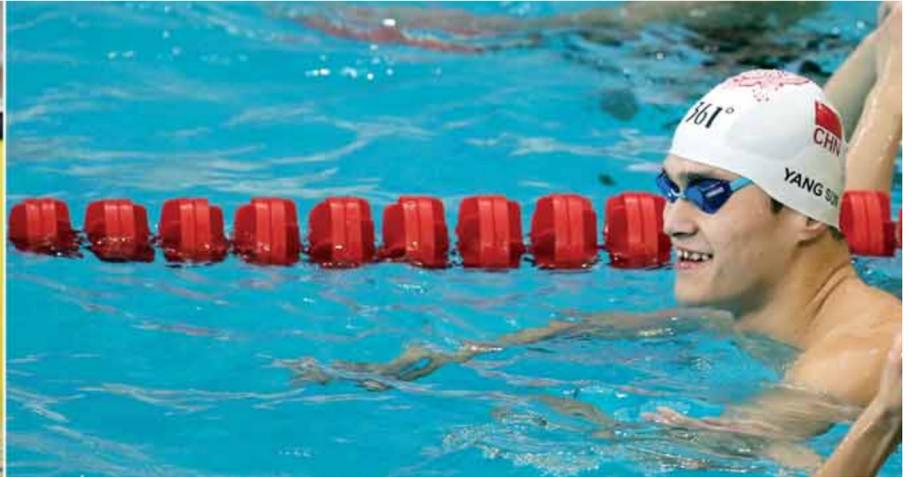


첫날 사격서 金 탕탕탕... ‘금빛 드라마’ 시작된다



라이벌의 미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금메달을 다투게 될 한국의 박태환(왼쪽)과 중국 수영스타 쑨양이 17일 인천 문학박태환 수영장에서 훈련을 하던 중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금 90개...5년 연속 2위 목표

28일 양궁·골프 등서 금 11개 ‘기대’

19일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금메달 90개 이상을 획득해 5회 연속 종합 2위 수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90개 이상을 따낸 것은 1986년 서울 대회와 2002년 부산 대회 등 두 차례 있었다. 서울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93개를 획득해 중국에 금메달 1개 차이로 종합 2위에 올랐고 부산 대회 때는 금메달 96개를 따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우리나라의 금메달 시나리오를 보면 대회 개막 후 첫날인 20일부터 금메달 행진을 시작해 28일 금메달 11개로 절정을 찍고, 대회 막판인 10월1일과 2일에도 금메달 10개씩을 수확해 종합 2위 수상을 확정 짓는 것으로 돼 있다. 대회 개막 후 첫날인 20일 금메달 9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은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단체전, 남자 50m 권총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빛 총성’을 기대하고 팬싱에서도 남자 에페 정전선, 여자 사브르 김지연이 ‘금빛 찰랑’에 나선다. 유도 남자 60kg급 김원진, 여자 48kg급 정보경은 ‘금빛 메치기’를 시도하고 사이클과 승마에서도 금메달이 기대된다. ‘골드 데이’인 28일에는 양궁과 골프에서 무더기 금메달이

예상된다. 양궁 리커브 남녀 단체와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고, 골프 역시 남녀 단체와 여자 개인전에서 우승을 노린다. 남자 개인전까지 금메달을 따준다면 이 두 종목에서만 금메달 8개가 하루에 쏟아져 나오게 된다. ‘국민 스포츠’인 야구도 이날 금메달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흥대-유연성의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서도 금메달 소식이 들릴 전망이다. 또 육상 남자 장대높이뛰기 진민섭, 불링 남녀 3인조에서도 금메달을 바라본다. 10월1일과 2일에는 연달아 금메달 10개씩 쏟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일에는 요트 ‘호자 종목’ 노릇을 할 전망이다. 이날 요트 남자 레이저급 하지만, RS : X급 이태훈, 호비16, 매치레이스 등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태권도에서도 남자 87kg 이상급 조철호, 여자 46kg급 김소희가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 레슬링 남자 66kg급 류현수와 75kg급 김현우 역시 승전보를 준비한다. ‘우생순’ 여자 핸드볼과 정구 혼합복식 금메달을 기대하는 날이기도 하다. 2일에는 리듬체조 손연재와 남자 축구 대표팀이 금메달 선봉에 선다. 또 남자 핸드볼은 ‘동반 금메달’에 도전하고 남자 하키와 여자 배구도 금메달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육상 남자 세단뛰기 김덕현, 태권도 남자 63kg급 이대훈, 여자 62kg급 이다빈, 정구 여자복식, 럭비에서도 금메달 소식을 기다릴 만하다. /연합뉴스

인천바다, 아시아를 품다

조직위, 개최식 프로그램 공개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를 주제로 19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펼쳐지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식은 어머니와 같은 인천의 바다가 아시아의 손님을 품는 이야기가 될 전망이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17일 공개한 프로그램 연출 안에 의하면, 저녁 7시 44분부터 41분간 진행되는 문화공연에 개최식의 메시지가 집약돼 있다. ‘인천, 하나가 된 아시아를 만나는 곳’이라는 큰 주제로 펼쳐지는 공연은 아주 오래전, 하나의 가족이던 아시아를 상상하며 인천에서 다시 화합을 이루고픈 소망을 표현했다. 인천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인천의 바다와, 그에 얽힌 두 가지 이야기의 주인공 비류 왕자와 효녀 심청이다. 비류 왕자는 백제의 건국 설화에서 지금의 인천인 미추홀에 터를 잡아 나라를 세운 주인공이다.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우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가 연꽃으로 환생한 효녀다. 비류와 심청의 이야기는 과거 함께 노래하고 춤추던 한 가

족이었으나 언젠가 평화의 노래를 잃어버린 아시아를 인천에서 다시 하나로 엮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과거 하나이던 아시아를 상상하며 시작한 공연은 이후 다시 한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인천으로 들어오는 배를 맞이하고, 비류와 심청의 역할을 한 출연진과 등대, 우체부, 기자 등 사람 사이를 엮는 상징이 어우러지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국악인 안숙선씨가 한국적인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아시아의 꿈을 담은 배를 맞이하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춤추며 대미를 장식한다. 공식 행사에서도 선수와 심판 대표들이 배에 올라 선사하는 등 바다의 이미지가 개막식을 아우른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던 ‘굴렁쇠 소년’의 이미지도 재현된다. 아시아 45개국의 글과 소리로 진행되는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굴렁쇠가 등장한다. 이번에는 굴렁쇠 소년을 중심으로 많은 어린이가 함께 등장해 퍼포먼스를 펼친다. 이들은 이어 청사초롱의 이미지로 변해 손님들을 맞을 전망이다. 개최식의 하이라이트인 선수단 입장에는 국문 ‘가나다’순으로 이뤄진다. 네발 선수단이 가장 먼저 주경기장에 들어오고, 한국 선수단은 마지막에 들어온다. /연합뉴스



17일 챔피언스필드에 소집된 KIA 선수단이 러닝 등을 하면서 아시안게임 휴식기 첫 훈련을 소화했다.

KIA “초심과 기본”

훈련 소집...23·24일 한화·NC와 연습경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호랑이 군단’의 질주가 시작했다. 아시안게임 휴식기를 맞아 휴식을 취했던 KIA 선수단이 17일 챔피언스필드에 재소집됐다.

오전 10시 시작된 훈련은 ‘처음부터 다시’가 컨셉이었다. 한 시간이 넘게 러닝·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 선수들은 톱토스에 이어 야수-투수진이 호흡을 맞춘 수비 훈련을 진행했다. 타격훈련은 물론 베이스 러닝 훈련도 꼼꼼하게 이뤄지는 등 캠프 분위기가 물론 풍겼다. 4강 싸움은 물거품이 됐지만 최후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만큼 ‘초심과 기본’이 강조됐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진행되는 교육리그 참가를 위해 출국한 내야수 고영우 대신 김광연이 선수단에 합류했고, 지난 10월 2군으로 내려갔던 투수 서재응도 선수들과 호흡을 맞췄다. 교육리그 명단에 포함됐었던 좌완 최현정도 잔류, 1군에서 가능성을 테스트 받을 예정이다. 올 시즌 부상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던 김선빈의 합류는 미뤘다. 김선빈은 22일부터 팀에 합류해 10월 복귀를 위해 스파이크 끈을 조여매게 된다. 기본·기술훈련을 하며 휴식기 첫 주를 보내게 되는 KIA는 이후 4차례 연습경기를 갖고 실전 준비에 들어간다. 23일 오후 6시 한화와 챔피언스필드에서 연습경기를 갖는 데 이어 24일 오후 5시에는 NC와 연습경기를 진행한다. 원정 연습경기도 준비됐다. KIA는 27일 오후 5시 대전구장에서 한화를 상대한다. 이 경기는 ‘도네이션 경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객을 위해 정규시즌과 같이 경기장이 운영되며, 할인 판매되는 티켓 수익금은 대전지역 독거 노인들을 위해 기부된다. KIA는 28일에는 마산으로 이동해 오후 5시 마지막 연습경기를 치르며 막판 스퍼트를 위한 준비를 끝낼 계획이다. ‘가을 잔치’를 위한 리허설이 아닌 ‘최하위 싸움’을 앞둔 KIA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